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북-러 경제관계: 러시아의
북한 채무 탕감을 중심으로

North Korea–Russia economic relations:
Focusing on Russia's debt relief to North
Korea

2021년 0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Belonog Anna

북-러 경제관계 : 러시아의 북한 채무 탕감을 중심으로

지도 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Belonog Anna

Belonog Anna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08월

위 원 장 한정훈

부위원장 최용섭

위 원 박태균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관계와 그 속에서 기존 소련과 북한의 가지고 있던 채무 관계의 역할에 대해 깊은 탐구가 진행되었다. 1997년부터 북한의 부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2007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는 2012년에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 저자는 러시아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에 진 채무의 90%를 탕감해준 이유에 대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과도한 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아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채무를 탕감해주었다는 가설을 통해 논문을 전개한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적 단절은 깊어 졌고, 반면 남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 전략을 통해 관계를 이어 나갔다. 반면, 과거 러시아의 가스 수출 시장은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두차례의 가스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스 사용과 관련된 유럽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량은 감소할 것을 예상되고, 이는 통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더이상 유럽 시장이 아니라 동북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동북 아시아의 좋은 시장 중 하나인 남한을 통해 가스 수출의 통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지리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에너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거 북한이 진 채무를 탕감해줄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러시아는 2012년에 북한이 진 채무의 90%를 탕감해주고, 10%를

20년 동안 반기 별 동일한 환전 방식으로 북한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주요어: 구소련 채무, 북한, 러시아, 북-러 경제관계, 남-북-러
경제관계, 북한의 채무
학 번: 2019-20865

목 차

1. 서 론.....	1
1.1 문제 제기	1
1.2 선행연구.....	3
1.3 연구법.....	7
2. 구소련의 북한 대외채무 발생 및 변화	9
2.1 소련 붕괴 전 북한–러시아 관계 및 북한–소련 채무 현황.....	9
2.1.1 소련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 정체 및 채무 생성	9
2.1.2 북한–소련 관계 및 채무생성 과정.....	10
2.1.3 남한–소련 관계.....	14
2.2 소련 붕괴 이후 북한–러시아 관계.....	15
2.3 소련 붕괴 직후 남–러 관계 속 북한	17
3.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무 현황	21
3.1 소련 붕괴 직후 대외채무 처리 정책	21
3.2 대외채권 처리 정책의 전환점: 파리 클럽 가입.....	22
3.3 연도별 채무 처리 정리	22
3.3.1 2004년–2006년 현황	22
3.3.2 2006–2015년 현황	23
4.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과 북한 채무	27
4.1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요 감소 문제	27
4.1.1 러시아 가스 수출과 그 중요성	27
4.1.2 가스 갈등과 그 여파	28
4.1.3 러시아의 가스 시장 변화	30
4.2 러시아의 대응	34
4.2.1 러시아의 가스 계획과 아시아 시장	34
4.2.2 남–러 경제 관계	37
4.2.3 북한 채무 탕감과 한반도–러시아 간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42
5. 결론	46
참고문헌.....	49
Abstract.....	55

그림 목차

[그림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총 수입량에서 주요 가스 공급 업체의 점유율]	33
[그림 2. 유럽연합 외부에서 OECD– 유럽으로 수입하는 주요 가스 공급 업체의 비율]	34
[이르쿠츠크 가스 프로젝트]	38
[러시아 천연가스관 현황 (2011)]	43

1. 서론

1.1 문제 제기

21세기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양 국가 간의 무역이 소규모로 이뤄지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 때문이다. 21세기 초, 러시아의 한국학 전문가들은 러시아-북한 경제 협력에 관한 여러 연구했다.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한반도 관련 러시아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북한 채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소련은 북한의 핵심 경제 파트너였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13년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20년간 양국의 무역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최근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대북 사업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북한과의 무역량을 10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모스크바는 현재 북한에서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들 또한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남북한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미래 전망을 검토하고, 양자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한 주요 형태와 잠재적 기회를 분석한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메커니즘 확대와 공동 경제 프로젝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재적 참여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2년 9월 17일 구소련에서 이전에 허가한 대여금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북한 채무의 해결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비준하는 연방법이 2014년 5월 5일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부채는 이자를 포함해 110억달러로 추산됐으며 소련 시절 67코페의 달러화 환율을 근거로 들었다. 러시아는 북한 부채의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10억 9000만 달러)은 20년 동안 반기 별 동일한 환전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상환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①, 그에 따라 러시아 국영 브네세코노믹뱅크가 15일 북한 대외무역은행에 개설한 무이자 계좌에 입금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과거 북한이 구소련에 진 채무의 90%를 탕감해주었는데, 그 특징과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저자는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과도한 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아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써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채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파리클럽 가입과 같은 채무 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또한 부수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스 수출 사업은 러시아의 총 수출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부문의 국가간 사업을 진행할 때, 국가 간 채무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림돌을 없애고자 했던 의도가 가장 컸으며, 북한의 채무 탕감 과정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① Россия на 90% простила КНДР долг в 11 млрд долларов,
https://www.bbc.com/russian/international/2012/09/120918_korea_russia_de_bt (검색일: 2021.05.11)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이 러시아와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 국가간 동의가 필수적인 국가이므로, 북한의 협조 아래에서 한반도의 에너지 협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기존 가스 수출 시장은 대부분 유럽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차례 반복되는 우크라이나 관련 가스 갈등으로 인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신뢰도 하락과 유럽 국가 자체에서의 기후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에서 수입하려 하는 가스 수출량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Gazprom^① 아시아 가스 시장 점유율을 대폭 늘릴 계획 중에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 특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결정을 했다고 본 저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1.2. 선행연구

소련과 북한의 경제적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우선, 이것은 러시아 채무부가 외국의 개별 부채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기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Doug J Kim^②은 소련이 전후 북한 채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북한의 소련에 대한 채무의 출현 배경을 밝힌다. Doug J Kim는 부채가 3각 프로젝트 개발의 결과로 21세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발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채의 탕감 이유나 배경을 밝히는 한국어로 개제된 연구는 많지 않다.

김학기, 김석환, Tagir D. Khuziyatov는 3각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남–북–삼각 경제

^② Doug J Kim , Russian Influence on North Korea: Views of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s to Russia(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4권3호 ,2012)

협력 방안 연구”^③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이 연구는 냉전의 종식과 한국 산업의 글로벌화 이후 한반도를 접경하는 국가들 간의 초국경적 협력에 대한 구상을 가능케 했다. 그 중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방안으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정치적, 안보적 방안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동북아 지역의 복합협력 개념이다. 남·북·러 3자 협력 구도 내에 존재하는 양자 간 협력은 자본주의 체제(한국), 이행기 체제(러시아), 공산주의 체제(북한) 간 협력이기도하면서, 동시에 발달된 산업국가(한국, 러시아), 자원공급지역(러시아), 저개발국가(북한) 간 협력이기도 하다. 3국가 협력 구상은 1990년대로 거슬러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활발적으로 논의된 남·북·러 협력의 기본 사업은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사업이다. 둘째, 북한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남한으로 보내는 가스협력 사업이다. 셋째, 러시아의 전력을 북한에 연결하는 국가간 전력망 사업이다.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상은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사업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오래 됐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평화 에너지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 왔고,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중국에 에너지 협력 구도 재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를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중점 지역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남·

^③ 김학기·김석환·Tagir D. Khuziyatov,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 관점에서(산업연구원, 2014)

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을 통해서 최근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극동지역과 연관된 남·북·러 협력사업에 대해 깊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 이루기 위한 북한–러시아의 채무 관계 및 해결과정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한반도 간에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구소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이유였다. 에너지 협력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서양 연구자의 과정, 한국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러시아 연구자의 과정이다. 대부분의 서양 연구자들의 주요 아이디어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weapon)"로 사용하여 국제 무대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 중 하나는 Jonathan Stern의 연구이다^④. Stern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러시아 천연 가스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룬다. 주요 주장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사할린 섬에서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Marshall Goldman의 연구^⑤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러시아 부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역할과 세계 최대 가스 생산 업체인 Gazprom의 창설에 대한 푸틴의 공헌을 반영하다. 러시아 정부와 다른 주요 업체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분석은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 연구 그룹은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방대한 양의 세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요 연구는 백근옥

^④ Jonathan Stern, *The Future of Russian Gas and Gazpro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⑤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8)

전문가^⑥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파이프 라인을 통해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한다. 러시아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LNG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한국한테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러시아 연구는 세 번째 그룹에 속한다. 러시아 전력 산업 정책 변화 문제는 200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Edelman에 따르면 이 산업의 시장 관계 발전의 현재 단계는 시장 지향적 관리 구조를 형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기존 발전소의 기술적 재정비이다. 2000년대에 사용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발전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전기 생산 및 전송에 대한 현대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러시아의 전력 발전 용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한 것은 한국이다. 이외에도 Suslina 연구^⑦에서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있다. Suslina는 천연 가스 및 석탄의 대규모 공급 가능성, 대한민국으로의 전력 공급 및 남한에서 물품 운송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러시아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한국의 러시아와의 대외 무역은 한국을 횡단하는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시행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에게는

^⑥ Keun Wook Paik, "Pipeline Gas Introduction to the Korean Peninsula" Chatham House Report(London, January 2005)

^⑦ Suslina S (2006) Russia's economic impact on the ROK and the DPRK in the context of integration processes in the NEA in Korean Peninsula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cademic Conference of Russia and CIS Koreanists. IFES RAS, Moscow, pp 114–126 (in Russian)

한반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 전체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반도는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1.3. 연구법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 경제 관계, 또한 대소련 채무의 처리방식 및 처리경과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조사, 세미나, 자료, 신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활용한 연구는 김찬진(2009), “냉전 시기 소련-북한의 비대칭동맹과 북한의 자주외교”, 김학기, 김석환, Tagir D. Khuziyatov(2014)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Stephen Blank(2011) ‘‘Kim Jong Il’s Excellent Adventure in Siberia’’, Kim, D. J. (2012). Russian influence on North Korea: views of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s to Rus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uslina, S. S. (2006) Russia’s economic impact on the ROK and the DPRK in the context of integration processes in the NEA. Korean Peninsula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loraya, G. (2012). North Korea is the key to Asia-Pacific Region, Korean Settlement and Russian Interests (2008). V. Denisov & A. Zhebin, Leshakov, P. S. (2005). Russia’s role in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Савельев (2001)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нов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사벨예브. “러시아연방의 정치 모색과 러-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 위에도 여러 관련잡지와, 신문 기사들이 활용했다. 최근에

국제정치 및 세계경제와 관련하여 북한 채무의 대한 여러 자료, 신문 기사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 안보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연구도 존재한다. 대부분 연구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시각에서 정책적 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객관성과 포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자는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연구했다.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부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은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이다. 이 연구를 위해 러시아어로 개제된 자료 중, 러시아 연구 센터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세계 경제 및 국제 관계 연구소), 전략 연구 및 분석 연구소, 유럽 연구소, 현대 개발 연구소)에서 출판한 집단 논문은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연구들은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유럽 연합 간의 관계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했다. 러시아-유럽 에너지 협력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도 이 연구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러시아 북한 관련 채무의 의미와 관련 정책의 배경을 고찰하였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자는 한반도에 관한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북한과의 부채 문제의 해결 필요성과 부채 탕감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결론을 내렸다. 주요 정보 출처는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 기관 및 기업의 공식 문서와 보도 자료 사용했다. 통계 데이터는 러시아 연방 관세청 및 관련 Gazprom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2. 구소련의 북한 대외채무 발생 및 변화

2.1. 소련 붕괴 전 북한–러시아 관계 및 북한–소련 채무 현황

2.1.1. 소련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 정체 및 채무 생성

소련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체제를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이러한 정책은 정치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및 군사 – 기술 협력에서도 수행되었다^⑧. 북한 같은 경우, 북한–러시아 무역 및 경제 협력의 발전은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소련과 북한의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1960년 11월 19일 소련–한국 무역 항해 조약이 수립되었다.

소련은 군사기술 지원에 특히 적극적이었지만 대부분의 군사 물품을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소련에게 채무가 쌓인 국가들이 발생했고, 채무국들의 소련 채무비중은 높아질 수 밖 있었다. 소련은 1990년까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련 최고 관리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 1989년의 정보에 따르면 소련의 채무국은 49개 국가이다^⑨. 기본적으로 소련의 채무국은 특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였다. 즉, 대부분

^⑧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августа 2004 г. N 435."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выверки и принятия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требований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мерческих кредиторов по задолженности бывшего СССР по компенсационно-фахтовым операциям". (대소련 채무재조정에 관련하여)

^⑨ Круглов В.В. 2003.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алютно–кредит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финансовые отношения. р. 40

채무국들은 경제적 지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채무국 중에는 북한도 존재한다.

2.1.2. 북한-소련 관계 및 채무생성 과정

많은 연구들은 한국 전쟁 바로 전에 소련이 북한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⑩. 소련이 한국전쟁 배후에 존재하는 참여국이었고, 그 존재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 동안 더 주목받았다. 몇 개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 제 MIG가 한국 전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 공군은 MIG와 싸우기 위해 Meteor F-8을 배치했다..."^⑪. 또, "전쟁이 시작된 지 12 일째 되는 날 북한 전투기가 처음으로 격추당했다. 1950년 7월 7일, 미국 수사팀이 서울 남부에서 소련 제 야크 전투기를 조사했다. 북한은 소련이 북한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소련 휘장을 긁어 낸 지점에 북한 국기를 붙였다"^⑫. 실제로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만주로 보내지기 전인 151차 전투(1950년 8월 11일) 중에 소련의 식별 표시가 항공기에서 제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은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일례로, 소련의 사단 인원은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인 중국에 도착하자 신원을 숨기기 위해 중국 군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한국전쟁에 침투될 소련 항공 그룹의 구성은 1950년 11월 27일에 완료되었고, 이날 제 28, 50, 151기 전투 항공 사단은 제 64 전투 항공단의 일원이

^⑩ Leshakov, P.S. (2005). Russia's Role in the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Korea: New Horizons*. Moscow: IFES RAS. p, 201

^⑪ ROKAF Headquarters, *Memories of the Korean War: Royal Australian Air Force in the Korean War* (Seoul: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1), p. 17.

^⑫ General Baik's Korean War Memoir, *Shoot Me If I Retreat: The 1,128 Days' Memories* (Seoul: The JoongAng Ilbo, 2010), p. 203.

되었다. 결국, 한국전쟁 동안에도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이후 소련과의 협력은 개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존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¹³ 소련은 중공업 기업의 출범을 도왔는데, 1945.11.20 일자의 "북한에서 중공업 기업의 1 단계 출범에 대한 소련군의 지휘 명령"은 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제공, 자금 제공까지 했다고 나온다¹⁴. 60년대에는 기술 지원, 국가 경제 발전 (야금 및 광업), 텔레비전 센터 건설 지원, 소련에서 북한으로의 추가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1962–1965년에 북한 화학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상품을 소련에서 북한에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이 있었다. 북한 정부와의 회의에 참석한 소련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소련 조직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우대 조건으로 장기 대출을 제공했다¹⁵.

냉전 시기에 소련은 북한의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였다. 1970~1980년대에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그 비중은 25~50%를 차지했고, 1990년에는 53.3%(22억 달러)에 도달했다¹⁶. 소련은 북한에 대한 전후 건설 사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자금을 지원했다.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연변에 대규모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소련에서 유학한 학생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했다. 또한, 북한은 소련의 연구용 원자로를

¹³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 1945–1980, p.95
письмо председател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председателю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предо
ставлении помощи корей скому народу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 ства кндр

¹⁴ 같은 차료, pp.16–17

¹⁵ 같은 차료, p.199–200

¹⁶ Leshakov, P.S. (2005). Russia's Role in the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Korea: New Horizons*. Moscow: IFES RAS. p. 201

도입했다¹⁷. 그 순간부터 북핵 위기가 탄생했다. 1962년 차관을 통한 군사장비 제공을 요청한 북한에 대하여 소련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신속히 줄여 나갔다. 이런 이유로 북-러 관계에서 남은 이슈는 오직 북한의 대소련채무 뿐이다. 북한은 1979년까지 대외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 국가부도 상황에 처했고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파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북한을 일본 및 한국과의 미군 동맹에 반대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계속 인식했다. 소련 언론은 동아시아에 군사 블록이 있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¹⁸ 생각을 표명했다.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두 차례(1984, 1986) 방문하여 무역, 경제, 군사 및 국경 협정이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련-북한의 협력 관계는 강화되었다. 소련 측은 MIG-23, MIG-29 전투기, 조기 경보 레이더 및 기타 군사 장비와 같은 무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소련은 원산과 남포의 북한 항구에서 군함을 호출할 수 있는 권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영공을 통해 베트남까지 비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것은 소련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¹⁹.

이렇듯 1980년대는 소련과 북한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국가 간 무역은 주로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는 외환 자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북한에게 매우 유익했다. 그럼에도

¹⁷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White Paper 1996–97 (Seoul: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7), p. 61.

¹⁸ Ahn Byung-joon. South Korean — Soviet Relations.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p. 822

¹⁹ Lho Kyongsoo. Seol-Moscow Relations. Looking to the 1990s. Asian Survey, 1989, vol. XXIX, no. 2, pp. 11–61.

불구하고 소련과의 무역에서 누적된 부채는 1993년까지 거의 30억 달러에 달했고, 부분 상환 후 북한의 소련 부채는 13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²⁰. 또한 소련은 석유 및 석유 제품, 전기 공학 및 산업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에게 판매했다. 타 국가대비 30% 낮은 가격이었다. 반면 북한은 귀금속, 아연, 철, 경공업 제품을 소련에 수출했다. 이 물건들은 북한에서 소련 극동의 외딴 지역으로 수출이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유럽 지역에서의 값비싼 수입품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소련은 북한의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북한과 프리모르스²¹ 영토 사이에 수익성이 좋은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구축했고, 그 지역 인구의 공급은 북한 식량 공급 및 경공업 제품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²² 기간 동안 물물 교환 거래량이 감소하여 북한의 수입량이 감소했고, 최종적으로 양자 무역 총량이 감소했다. 양국의 경제적인 접촉의 축소로 인해 북한과의 무역을 통화 단위로 완전히 이전하여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소련은 북한에게 매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준하는 북한 물품을 못 받고 있었다. 또한 소련은 북한의 원전 건설 준비를 도왔던 북한 전문가들을 소련으로 다시 소환했다. 이로 인해 소련은 미래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원전 건설 계약을 잊어버렸다. 추정에 따르면 소득은 4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었다.

²⁰ Забровская Лариса, Влияние перестройки на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ссср и КНДР, р. 12

²¹ 프리모르스키 크레이 – 러시아 극동에 있는 러시아의 변경주이고 러시아 북한과의 국경이다.

²²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는 러시아어로 '재건'의 의미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후 실시한 개혁정책이며 소련을 크게 바꾸었다.

2.1.3. 남한-소련 관계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정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한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고, 고르바초프는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에 주목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빠르게 형성되자, 소련 지도부는 더 이상 북한을 동아시아의 유일한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소련에게 있어 북한의 지리적, 전략적인 역할이 줄어 들었다. 전반적으로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일은 예전만큼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다. 산업과 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소련의 저개발 극동 지역이 국제 경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파트너이자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소련 지도부가 한반도 국가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이전에 확립된 북한과의 관계를 해치도록 한국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주변국에 대한 소련의 대외적 우선 순위 변화가 발생하였다.

1986년 7월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1) 역동적인 개발 도상국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2) 외교 정책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화의 결과로 발생한 소련의 고립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불러 일으켰다. 1988년 9월 크拉斯노야르스크에서 전해진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동아시아 국가 중 어느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명시하여 대한민국을 먼저 호출했다.²³ 이 발표는 냉전 고정 관념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사고(new Thinking/новое мышление)" 정책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명한 연설 (1986년 7월 28일)에서 "소련도 아시아의 일부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렇듯 말할 필요

없이 소련이 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분명 해졌다.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은 특히 "새로운 사고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소련 정치인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소련의 "새로운 사고"정책에 적합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와 노태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후, 서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소련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양국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처음에 소련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반도에 관심이 있었지만 고르바초프 권력이 러시아를 장악하면서 안보상의 관심에서 경제적인 관심에서의 관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1년 이후로 냉전은 끝났고 소련의 안보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줄어들자 소련은 남한 지역으로 관심을 돌렸다. 노태우는 '북방 정책'을 포함하는 선언을 발표한 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은 소련 선수들의 참여 뿐만 아니라 소련이 제시한 문화 프로그램 덕분에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이벤트로 평가된다. 이 역사적인 행사에서의 러시아-남한 교류는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소련은 공식적으로 남한과 교류를 유지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소련에게 어제의 형제였던 북한을 소외시킨 사건이었다.

2.2. 소련 붕괴 이후 북한-러시아 관계

1991년 8월 소련 쿠데타²⁴ 동안 북한은 쿠데타를 지지했다. 쿠데타가 실패한 후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는 북한 지도부가 핵 프로그램을 정권의 생존을 위한 무기로,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 칩으로 사용하도록 촉발시켰다. 북한과 더이상 정치적

²⁴ 8월 쿠데타(августовский путч) – 소련에서 1991년 8월 18일부터 21일 까지의 사건,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반대해 일으킨 쿠데타이다.

결이 같지 않은 봉괴 이후의 소련은 더이상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고, 북한은 안보 전략을 재고해야 했다. 당시 평양에는 "핵무기"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소련 봉괴 이후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과의 형제 관계보다는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 1990년대 초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완전히 동결시켰고,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 공동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새로운 경제 협력은 양국 간의 무역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1995년에 양자 간 무역은 8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1990년대 초 러시아는 친남 노선을 취했다.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의 탄생으로 인해 외교정책도 변경되었는데 이는 안정적이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²⁵

1992년 11월 한-러 기본 관계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한 · 러 관계의 기본 원칙이 정해졌다. 이 조약에 따라, 무력 사용은 분쟁 해결에 허용되지 않으며,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의 공통 가치를 고수해야 한다. 또한, 양측은 UN 헌장에 따라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양국 관계와 상호 이해 관계가 있는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 및 정부 수반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또한 1993년 한국과 러시아 국방부 간 최초의 직접 교류를 촉진하는 양해각서에 덧붙여 문화 협정과 한-러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서명했고, 군사 교류에 관한 다른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러시아 첫 대통령, 엘친이 서울을 방문한 주된 동기는 경제적 이득이었고, 남한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정책 저지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원했다. 엘친은 한 · 북

²⁵

양국 간 핵 사찰에 대한지지를 표명하고 무기와 군사 장비 공급 중단을 약속했다. 엘친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협력의 표시로 추락 한 대한 항공 007호의 블랙 박스 2개를 건네 주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치'는 국내외 관계를 변화시킨 뛰어난 외교 전략이었다. 또한 북방 정책은 한-러 관계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기본 관계 조약의 서명은 미래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동시에 북한은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1961년 동맹 협정이 기능을 멈췄고,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은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을 공식 방문했을 때 표명 한 조약 무효화에 대한 평가에 불만족했다. 1990년대 후반에 양당은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2000년 재협상 된 것은 많이 바뀌었다.

러시아와 한국 (한국)의 본격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는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된 후 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첫 10년은 상호 실망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양측은 파트너의 경제적 및 정치적 능력이 실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러 관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번한 접촉을 포함했다. 어느 나라도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정치 ·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소비에트 이후 동북아의 다른 강대국들과 정치 · 군사 관계를 다각화하는 데 있었으며, 러시아는 외교 활동에 대한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고 했다.

2.3. 소련 붕괴 직후 남-러 관계 속 북한

모스크바는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거래를 하려면 6자회담의 지지부진한 진행, TKR과 TSR 사업의 철도 연결, 한반도를 통한 가스 및 송유관 건설 등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다. 러시아 외무 장관은 북한을 방문하여 2000년 2월 9일 양국 간 새로운 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새 조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과 소련 간의 형제애, 협력에 관한 조약. 상호 원조는 «형제, 우정, 협력에 관한 북-러 조약»으로 개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관계가 양자 협력임을 의미한다. 한 당사자는 더 이상 치료 제공자가 아니며 다른 당사자는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니다. (2) 조약의 어느쪽에서든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군사 개입 및 지원 및 자원 제공" 조항은 "조약의 어느쪽에서든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상호 개입으로 대체된다. 조약 권한; (3)이 협정은 협정 조항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여 양국 간의 협력 조건을 명시한다.

북한의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관계를 보자면, 비록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가 수십 년 동안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북한과의 상호작용 문제는 복잡하고 모호하다. 정치 독재, 지속적인 상호 작용 규칙 수정,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지도부의 결정은 그러한 협력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집권 노동당의 정책은 단지 평행 경제 성장과 핵무기 증대를 위한 정책이다.

소련은 한 때 북한에 있어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했던 사회주의 동맹국이자 경제적 후원국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에 개혁과 개방의 움직임이 사회적 호응을 얻게 되면서 북한-소련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다. 1991년 갑작스러운 소련의 붕괴와 연 이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혼란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단절시켰다. 경제위기에 처한 신생 러시아는 대북 경제원조를 급속히 줄였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도 경화결제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해 동맹국 간의 신뢰와 유대보다는 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북한은 한 때 공산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 있는 러시아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급기야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한-소 수교장에서는 직접적인 분노를 표하기도 하였다. 1990년 11월 북한과 소련 사이 지속되어 왔던 바터 방식의 거래관행과 소련이 북한에 제공해 왔던 에너지, 군사기술에 적용되었던 우호가격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거래 협정이 체결되면서 북한의 소련에 대한 불신은 표면화되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는 독자노선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중국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모든 안보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해외로부터의 연료 원조가 줄어들면서 북한은 다시 러시아를 공급원으로 삼았다. 양국 지도부 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모스크바는 최고 정치 수준에서 평양과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하고 배타적 인 기회를 얻었다. 또한, 북한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미 북한 산업이 구소련 기술과 시설로 장비되어 있어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와도 협존하는 북한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2010년에 들어 경제지원과 가스 및 석유 사업을 매개로 북-러 관계가 해빙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이미 공고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른 시일 내 중국에 버금가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런 배경 하에 러시아는 북한이 지고 있던 대소련 채무의 전액 면제를 협상카드로 삼아 양국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는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창구이며 한반도는 동북아의 열쇠이다. 한국 정착 문제는 국제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대표들이 다른 “강대국” 의 상대를 만날 때 정기적으로 논의된다.

3. 러시아의 구소련 대외채무 현황

3.1. 소련 붕괴 직후 대외채무 처리 정책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국제 대외 채무 중 대부분은 소련이 다른 국가 경제 발달에 대규모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국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과거부터 대외 채무 문제는 2가지 난해한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첫째, 채무국은 러시아를 소련의 법적 후계자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소련 루블을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채무는 2008년부터 "러시아 연방이 외국, 그 법인 및 러시아 영토 밖의 투자에 대한 국가대출 제공 프로그램"²⁶ 법령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외국 채무에 관한 모든 문서와 서류는 "비밀"로 분류되며 공개하지 않다.

러시아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되듯이 러시아는 구 소련의 법적 후계자로서 구 소련에게 부채가 있던 타 국가에게 채무를 청구할 권리를 이어받았다. 파리 클럽에 가입하기 전에 러시아 채무 정책은 채무국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최소한 일부 채무 금액을 받고, 기존에 있던 채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러시아와 채무국간에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채무 상환에 지연이 계속되었다. 러시아의 태도는 결과론적으로 채무국과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채무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국가간 프로젝트의 실행을 방해했다. 또한 채무 문제로 인해 채무국과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의 복잡했다. 러시아에 있어서 외국

²⁶ «Программ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редитов иностра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ам, их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ам, а также инвестиц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территории РФ»

기업은 이전에 소련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국가의 기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대외채권 처리 정책의 전환점: 파리 클럽 가입

1997년 러시아가 대외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 클럽에 가입한 것은 대외채무 자산 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국제 사회에서 채택한 채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채무국들의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채무국들이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파리 클럽의 규칙에 따라 무기 공급 및 군사 기술 지원은 채무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의 상당 부분을 추가로 탕감할 수 밖에 없었다. 채무국에 대한 구소련의 무기 공급 및 군사 기술 관한 채무는 그 중 8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파리 클럽 조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채무국가의 채무 처리 거의 30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은 특히 2001–2003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 금액의 35–80%를 취소하고 2년에서 33년 동안 부채의 나머지 부분을 재구성하도록 규정했다.

3.3. 연도별 채무 처리 정리

3.3.1. 2004년–2006년 현황

2004년부터 러시아는 이라크, 시리아, 알제리, 리비아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관련 부채 구조 조정은 파리 클럽 규칙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파리 클럽의 규칙에 따르면 1인당 GDP 규모와 부채 부담 지표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 몇몇 국가들은 부채 탕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시리아와의 합의(2005)에 따라 134억 달러

의 시리아 공공 부채는 98억 달러로 탕감될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나머지 36억 달러 중 러시아는 15억 달러의 통화를 받고 21억 달러는 현지 통화로 변환되어 시리아 주립 은행의 특별 계좌에 입금된다. 특별 계좌에 있는 돈을 통해서, 러시아는 기존 러시아 기업과 신생 기업이 시리아에서 이미 시행중인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리아는 또한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 장비의 현대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알제리 부채의 완전한 탕감(2006년 2월 1일 기준으로 47억 달러)은 러시아산 제품, 주로 군사 장비를 대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알제리와 총 75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푸틴이 알제리를 방문하는 동안 러시아 Yak-130 전투훈련기 16대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채무 협상 방안을 통해 채무 상환을 위한 복잡하고 긴 협상 대신에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국가간 거래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사업에 참여한 러시아 기업은 이러한 거래의 수혜자가 되었다. 논란이 되는 채무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러시아는 채무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3.3.2. 2006–2015년 현황

러시아는 2010년에야 대외채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채무국에서 진행되지만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채무의 구조 조정 및 사용에 관한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진행됐다. 2006–2016년 러시아는 관련 계약 체결 시 수정된 요구 사항 및 발생한 이자를 고려하여 조정된 많은 양의 부채를 탕감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약 110억 달러, 알제리에 약 47억 달러, 리비아에 약 45억 달러, 이라크에 80억 달러에 해당하는 채무를 탕감했다.

2010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의 채무를 탕감했고 이와 관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양국은 무역 및 경제 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특히 이 각서는 아프가니스탄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공한다. A. Kudrin²⁷에 따르면, "두 나라 간의 협력은 도로 건설, 산업 발전, 인도주의적 협력 분야에서 발전할 것이다."²⁸라고 명시되어 있다.

리비아의 채무 문제는 2007년에 해결되었다. 러시아는 500km 이상의 Sirt-Benghazi 고속도로 건설 계약에 관심이 있었다. 이 고속도로는 이집트와 튀니지를 연결하며, 계약 금액은 리비아 측이 전액 지불하고 건설은 러시아 철도 회사(RZD)의 주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Gazprom" Alexey Miller의 이사회 의장은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 와 "Libyan African Investment company(LAICO)" 사와 각각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리비아의 가스 및 유전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이행에 합의했다. 가스 처리, 가스 액화 및 정유를 위한 새로운 시설 건설 및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력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물론 에너지 부문의 다른 분야와의 협력도 있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이라크 채무는 2008년에 탕감되었다. 러시아는 이라크와의 에너지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이라크 "West Qurna-2" 프로젝트를 위한 LUKOIL²⁹의 계약 갱신에 대한 논의가 중대하게 이뤄졌다. LUKOIL은 1997년에 생산 공유 계약(Product Sharing Agreement, PSA)에 따라 개발권을 받았지만 2002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LUKOIL의 의무 불이행

²⁷ 러시아 경제 학교 이사회 의장(New Economic School, Russia)

²⁸ <https://www.rbc.ru/economics/06/08/2007/5703c8789a79470eaf766646>

²⁹ 루크오일 -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다. 석유, 천연가스의 추출 및 탐사, 정유 제품의 생산, 운송, 판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후세인 정권 전복 이후 이라크의 사미르 알-가드반 석유 장관도 이전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LUKOIL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계약 갱신을 모색하고 있었다. 2007년 이라크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기업들이 이라크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배경에서 채무 탕감에 대한 협상은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최종 결정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2009년 12월 12일에 LUKOIL과 노르웨이 기업 Statoil의 컨소시엄이 "West Qurna-2" 유전 개발권 입찰에 참여하여 개발권을 얻었고, 2010년 1월 31일 West Qurna-2의 개발 및 생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쇠빈국 그룹(라틴 아메리카 가이아나 및 12개 아프리카 주-콩고, 에티오피아, 기니, 기니 비사우, 모잠비크,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베냉, 상투 메프린시페, 부룬디 및 차드)에 대한 채무는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상당한 양의 부채들은 채무국들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식 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일환으로 탕감되었다. 그리고 인도 부채는 일부 투자로 전환되어 탕감되기도 했고, 탕감 후 남아있는 부채에 대해 지속적인 상환과 1991년 이후 러시아가 제공한 부채에 대한 협상 또한 이루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몽골의 1억 7,420만 달러 부채를 탕감하는 대통령령을 발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의 탕감된 금액은 총 부채금액의 97%에 달하고, 몽골의 남은 부채 금액은 380만 달러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개발과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했고 러시아, 중국, 몽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철도 인프라 개발과 우라늄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 러시아는 몽골에 석유 및 석유 제품을 공급하며, 몽골은 러시아의 대외 무역 구조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무역량을 가지는 국가이다.

2014년에는 가장 큰 외채인 쿠바 부채가 해결되었다. 러시아는 쿠바가 가지고 있던 채무의 90%를 탕감해주었으며, 그 금액은 약 317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나머지 35억 달러의 채무 잔액은 10년 이내에 균등 분할로 갚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탕감 이후 쿠바는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투자에 매력적인 시장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부채의 일부를 쿠바 경제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쿠바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있다³⁰.

이외에도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이 1992–1993년에 받은 8억 66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했다. 2014년 12월 양국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법령이 체결되었다. 이 법령을 통해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채무를 탕감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의 다이아몬드 펀드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이 있었다. 대통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부채를 탕감하면 타 국가로의 러시아 군사 장비 공급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논의했다³¹.

이와 같이 2004–2010년 이후 러시아 연방의 부채 탕감 정책의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채는 채무국과의 협력 이행을 위해 탕감되었다. 러시아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인 에너지 협력은 부채 해결의 핵심 요소였다는 주장도 많다. 이러한 주장은 리비아, 이라크, 몽골, 쿠바의 부채 탕감을 근거로 뒷받침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준 이유 역시, 한반도의 에너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³⁰ Фаляхов Р. Россия простила Кубе \$30 млрд долга // Газета. Ру. 2014. 15 июля.

³¹ <https://www.gazeta.ru/business/2016/09/26/10216463.shtml>

4.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과 북한 채무

4.1.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요 감소 문제

4.1.1. 러시아 가스 수출과 그 중요성

가스 산업은 러시아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러시아 연방 예산의 수익 기반을 크게 결정한다. 천연 가스 수출 수익금은 러시아 연방 정부 예산의 수익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러한 공급품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로 판매한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구조 조정과 민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독점의 경향은 2000년대에 다시 나타났다. 특히 가스 산업에서 Gazprom은 90년대 초반에 회수된 자산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Gazprom의 새로운 경영진은 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자산 복구 캠페인을 시작했다.³² 그 결과 Gazprom은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의 많은 기업에 대한 통제권이 회복할 수 있었고 일종의 독점 기업으로 변모했다. 어려운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 수출은 소련 시대보다 새로운 러시아에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로부터 받은 자금의 도움으로 러시아 지도부는 국가 존재 이후 10년 아래로 발생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연합과의 에너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항상 러시아 지도부에게 경제적으로 특별한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자원 기반 개발 전략을 특별히 강조한 2000년대에 새로운 지도부가 도래하면서 유럽연합에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관심을

³²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2000–2010 г оды) // под общ. ред. В.А. Гусейнова – М.: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011. С. 172

보이기 시작했고, 2000년대는 매우 성공적인 협력관계에 있었다. Gazprom의 경우 "독일의 가스 시장의 약 35%, 이탈리아의 경우 24%, 프랑스의 경우 28%, 오스트리아의 경우 72%"³³를 수출했으며, 벨트해 연안 국가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럽의 불가피한 가스 수요 증가에 때문에 앞으로의 가스 수출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

4.1.2. 가스 갈등과 그 여파

Gazprom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에 공급되는 모든 가스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 양의 약 절반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했다.³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은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시작되었지만 분쟁은 2000년대에 더 심화되었다. 2000년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많이 복잡해지고 있었는데 제일 큰 갈등은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두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소비량의 약 25%를 제공했고 그 중, 약 80%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위치한 파이프 라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2006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 다음과 같다. Gazprom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천연 가스 가격을 인상하려는 의도로 인해 발생했다. 구소련 국가에 대한 수출 가스 가격을 유럽 가스 시장의 가격 수준에 맞춰주려고 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었다. 2006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이프 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약 182bcm의

³³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2000–2010 годы) // под общ. ред. В.А. Гусейнова – М.: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011. р. 311

³⁴ <https://www.vedomosti.ru/finance/articles/2014/03/06/evropa-menshe-zavist-ot-postavok-gaza-iz-rossii-chem-ranshe>

가스를 보냈으며, 그 중 우크라이나는 53bcm를 받았다.³⁵

2009년 가스 중단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2006년보다 더 심각했다. 첫째, 2009년 가스 갈등은 3일이 아니라 거의 3주로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2006년과 2009년의 논란은 또 다른 중요한 점에서 달랐습니다. 2006년 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량을 줄이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량은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통한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은 2009년 가스갈등의 초기 단계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다. 러시아는 2009년 1월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고 그 기간은 거의 2주 동안 지속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분쟁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비상 사태를 촉발했다. 가스 소비의 99%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슬로바키아는 1월 초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³⁶ 가스 공급 문제로 인해 유럽 국가, 특히 유럽 연합은 러시아 가스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2009년 겨울에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17개국에 러시아 가스 공급이 2주간 중단되었다. Gazprom은 또한 미지급된 가스 수출량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가스 전쟁»은 유럽이 터키 및 유라시아와 같은 다른 가스 생산자로부터 가스 수입을 다양화하고, 운송 자산의 소유권 분할 및 파이프 라인 용량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제 3자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조치를 취하도록 밀어붙였으며, 이는 러시아로의 유럽

³⁵ Pirani, Stern, and Yafimava,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 p. 6.
Enerdata, January 29, 2013, , accessed February 20, 2013.

³⁶ *Out of Gas?: Russia, Ukraine, Europe, and the Changing Geopolitics of Natural Gas* p. 6

수출의 미래에 중대한 규제 문제를 야기했다.³⁷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가스 위기 이후, 유럽에게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 업체이자, 정치적 목적으로 에너지 수출을 사용할 준비가 된 국가로 여겨졌다.

Gazprom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수출 시장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국가 간의 불신으로 인해 수출량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의 상당 부분이 유럽연합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판매 시장의 추세는 러시아 경제의 미래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약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변화의 결과로 유럽연합의 가스 수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1.3. 러시아의 가스 시장 변화

또한, 미국에서 가스를 자급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대량의 LNG가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가스 과포화"가 발생했다. 이 가스는 유럽 기업들이 장기 파이프라인 협정에 따라 Gazprom에 지불하는 것보다 단기 계약으로 판매된다. 그 결과, 유럽연합 내 일부 Gazprom의 최대 고객들은 러시아로부터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양국 협정의 유연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경우 유럽의 전통적인 가스 거래 모델 (최소 구매량이 협상되고 가스 가격이 유가와 연결되는 장기 양자 계약)이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다른 위협은 LNG가 미국에서 유럽 및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³⁷ Adam N. Stulberg, Strategic bargaining and pipeline politics; Simon Pirani, Jonathan Stern, and Katja Yafimava,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 of January 2009: A Comprehensive Assessment,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February 1, 2009)

2007년에 미국 국립 석유위원회는 유럽이 15조 입방 미터의 세일 가스 매장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는 입증된 기존 가스 매장량의 두 배 이상이다. LNG 가스전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까지 대륙 전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스웨덴과 폴란드에서는 해당 탐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비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지질 학자들은 해당국가에 가스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터키는 그러한 가스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 가스 시장의 균형을 더욱 변화시킬 것이다. 물론 유럽의 LNG 분야 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지하 사용법 및 환경 고려 사항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가능한 개발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럽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가스 자원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러시아는 주요 판매 시장에서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다.

³⁸ 따라서 러시아에게 가스 수출량을 보장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Russia, China and the Geopolitics of Energy in Central Asia»에서 한 러시아 에너지 관계자는 "...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수출 옵션을 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처럼 러시아도 선택권이 있길 원합니다."³⁹라고 했다.

LNG 시장 외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럽 연합은 중앙 아시아와 카스피해 영토를 통과하는 여러 파이프 라인을 개발 및 건설하여 러시아를 우회하여 세계 시장에 탄화수소를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ku-Tbilisi-Erzurum 가스 파이프 라인은 카스피 지역과 유럽 에너지 시장 모두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2012년에는 이란과 카스피해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통한 가스 파이프 라인 (TGI 파이프 라인) 건설이

³⁸ Russia, China and the Geopolitics of Energy in Central Asia. p. 16

³⁹ 같은 차료, p. 17

완료되었다⁴⁰. 또한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거쳐 중부 유럽 또는 이탈리아로 가스를 공급할 Trans-Anatolia 가스 파이프 라인 (TANAP)이 있다.⁴¹ 2011년에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간에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4년에는 연간 160억 입방 미터 용량의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⁴²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유럽 연합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러시아 측이 설정한 높은 가스 가격과 장기 계약이다. 장기 수출 계약은 유럽 연합에 천연 가스 공급 업체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 주요 국가는 러시아였다. 납품 수단은 주로 가스 파이프 라인이었으며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했으며 이는 구매자의 확고한 장기적 약속으로만 계약을 확정할 수 있었다. 꽤 오랫동안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했으며 Gazprom과 그 고객 모두에게 적합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변하고 있으며 공급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조건을 결정한다. 공급 업체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 업체는 유연한 가격과 유리한 공급 조건을 통해 서로 경쟁할 수 있다. 2009년부터 Gazprom은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유럽 기업으로부터 20개 이상의 요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Gazprom의 가격 감소 범위는 7 ~ 10%였다⁴³. 폴란드 PGNiG, 체코 RWE 및 오스트리아 Erdgas Import Salzburg는 가격 조건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이 성공했다.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선도적인 위치를

⁴⁰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2000–2010 г оды) // под общ. ред. В.А. Гусейнова – М.: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011. p.334

⁴¹ Трансанатолийский газопровод: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 <http://www.kavkazoved.info/news/2012/10/01/transanatolijskiy-gazoprovod-vozmozhnye-varianty.html>

⁴² Трансанатолийский газопровод: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 <http://www.kavkazoved.info/news/2012/10/01/transanatolijskiy-gazoprovod-vozmozhnye-varianty.html>

⁴³ Не брать и не платить // Ведомости 25 октября 2012

유지하기 위해 Gazprom은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한 국가에 대한 가격 협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유럽 소비자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협상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당연히 Gazprom의 수익과 순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Gazprom은 유럽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 그럼 1번은 ⁴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유럽으로의 총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 가스의 비율이 39%에서 31%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에 러시아의 유럽연합 외부 가스 공급 점유율은 48%에서 39%로 감소했다 (그림 2번 ⁴⁵). 유럽은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지만 대부분의 추가 가스량은 러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이 러시아에게 "기회를 잃어버린" 장소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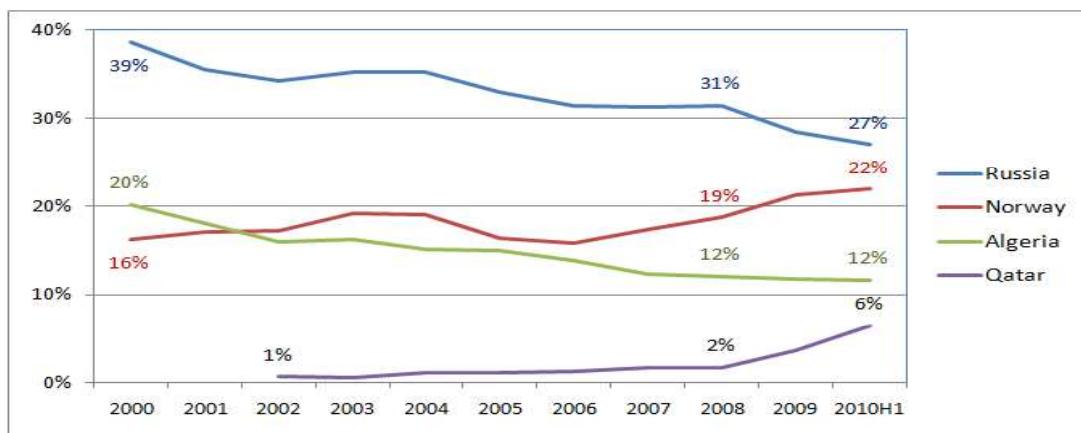


그림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유럽 총 수입량에서 주요 가스 공급 업체의 점유율

⁴⁴ International Energy Agency

⁴⁵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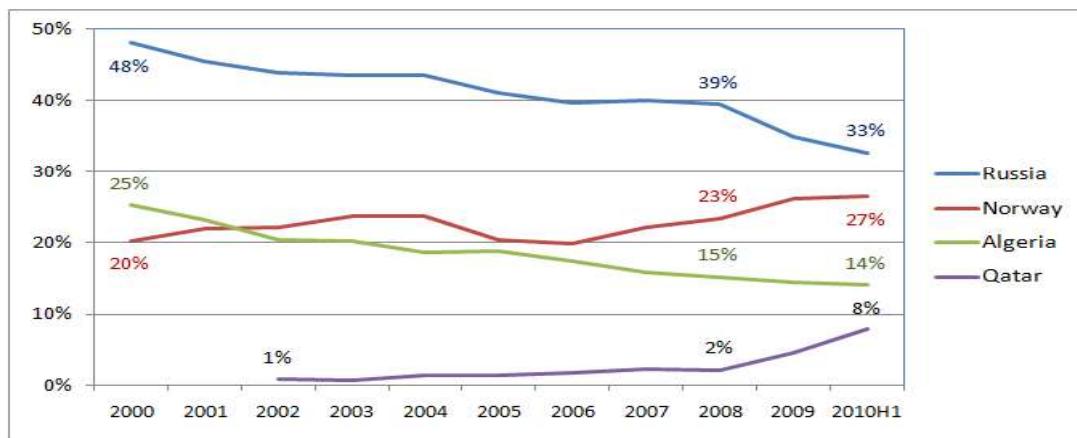


그림 2. 유럽연합 외부에서 OECD- 유럽으로 수입하는 주요 가스 공급 업체의 비율

이렇게 Gazprom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량에 있어서 유럽 지역을 포함해 이제는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다. Gazprom의 유럽 가스 수출은 2011년 회사 전체 수출의 64.9%를 차지했다.⁴⁶ 따라서, 유럽에서의 가스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가스 시장을 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한다. 2009년 11월에 채택된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이 이를 입증한다. Gazprom은 아시아로의 가스 수출을 0 %에서 2030 년까지 19% – 20%로 늘릴 것이다.⁴⁷

4.2. 러시아의 대응

4.2.1. 러시아의 가스 계획과 아시아 시장

러시아 영토에 위치하는 모든 파이프 라인은 소련 시기 때부터 러시아 기준 서쪽, 즉 유럽 쪽 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소련 이후에도 유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가스 수출의 주요 목적지였다.

⁴⁶ Gazprom website, <http://www.gazprom.ru/marketing/>

⁴⁷ Ministry of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Energy Strategy of Russia: For the Period up to 2030 (Moscow, 2010), p. 23.

그러나 2000년 이후에 러시아 정치인과 연료에너지 산업 부문의 최고 관리자들은 미래에 동쪽, 즉 아시아 쪽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자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따라서 2006년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수출에서 아시아의 점유율을 당시 3%에서 30%로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⁴⁸ 2009년 8월 정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채택했다. 이 문서는 부분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크게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운송 인프라 개발에 2조 달러 투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러시아 파이프 라인은 집중적으로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연방 에너지 관련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자료 내 제 2장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시에, 러시아 연료 및 에너지 자원의 총 수출에서 유럽의 점유율은 동부 지역(중국, 일본, 대한민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으로의 가스 수출 시장 다각화를 통해 꾸준히 감소할 것이다...»⁴⁹. 이 장에서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을 아시아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그 중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어떤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명시한다. 러시아에게 아시아 시장으로의 방향 변화는 최대 에너지 공급 업체로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⁴⁸ Full Text: Interview with Vladimir Putin // Financial Times. — 2006. — Sept. 10 (<http://www.ft.com/cms/s/0/76e205b2-40e5-11db-827f-0000779e2340.html#axzz1hp0laL2C>).

⁴⁹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산업 구조와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러시아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러시아 가스의 존재감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수출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러시아 연료 및 에너지 기업의 국제 활동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⁵⁰.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로 나뉘어 진 독특한 나라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36%를 차지하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따라서, 석탄,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가 풍부하다. 진행되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화석 연료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동북아 국가들은 극동 러시아의 화석 연료와 그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⁵²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에 따르면,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통합 가스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 러시아 지역에서 가스 파이프 라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형성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로 한국과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될 것이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마칠 경우, 국가 간 통합 가스 공급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는 2030년에 극동 연방 지구가 지역 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외딴 지역을 포함한 에너지원 수급을 완전히 충족하고, 타 국가로 수출하는 대규모 에너지 잉여 지역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⁵⁰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⁵¹ Mikhail Kholosha(2013) “Inte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Individual Country Report Russia,” Greater Tumen Initiative Secretariat, p. 5

⁵² Nina Ershova(2014) “Japanese Investments in Russia: Far Eastern and Western Russian Regions Compar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 No. 2, pp. 3-4

4.2.2. 남–러 경제 관계

1990년대 초, 소련과 남한의 상호교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경제협력은 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2000년부터 러시아와 남한의 국가적 관계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이 있었다. 북한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러시아를 한반도 내 긴장 완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한국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2000년에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대사가 만남을 통해 남북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계 사업 논의 및 양국을 포함한 3국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⁵³ 러시아도 남한을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파트너로 간주했다. 2001년에 제3회 한국–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첫번째로,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관계 개선과 같은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러 운송 협력(TKR과 TSR)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당시 러시아는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남북한 정상 회담과 생산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태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 러 정상 회담을 계기로 2001년 한 · 러 공동 성명이 체결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첫 번째 항은 지속적인 협력 개발이 양국 국민들의 이익과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번째 항은 대화와 협의를 촉진하고 쌍무적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⁵³ https://www.mid.ru/ru/maps/kr/-/asset_publisher/PR7UbfssNImL/content/id/595288

의미한다. 공동 선언의 세 번째 항은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자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과 기술, 정보와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추가 협력을 합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국의 정상들은 나홋카 경제자유구역에 한국, 러시아 간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르쿠츠크 지역의 가스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사할린 섬의 가스 개발 사업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르쿠츠크 가스 개발 사업은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러시아에게는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3국 경제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듯 한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TKR과 TSR 연결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르쿠츠크 가스 프로젝트⁵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러시아와 한국은 더욱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

⁵⁴<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1/09/04/socialAffairs/Questions-of-feasibility-benefit-on-pipeline-deal/2941131.html>

했다. 러시아와 한국의 가스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1월 13일 러시아 에너지 부가 한국 가스 공사 (KOGAS) 최고 경영자를 만남으로써 이뤄졌다.⁵⁵ 높은 가격의 에너지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당시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액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에너지 부는 한국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망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9월 방문을 통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에너지와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 전문가가 한국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2008년 4월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우주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다. 많은 신문들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정치적인 목적보다 경제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⁵⁶ 한국이 세계 4위의 석유 및 LNG 수출국이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인 석유 및 가스 구매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단계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었다. 논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삼성과 LG의 임원도 포함했다. 삼성은 하바롭스크의 정유 공장 현대화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LG는 타타르스탄에서 15억 달러의 석유 화학 합작 투자를 개발할 예정이었다.⁵⁷

2008년 러시아와 한국에서 3개월 차이를 두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후임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로 대체되었고 한국에서는 기존 노무현 정부의 반대 진영인 보수 정권의 대표였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국 정부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⁵⁵ http://www.mid.ru/ru/maps/kr/-/asset_publisher/PR7UbfssNImL/content/id/496458

⁵⁶ Roh's road to Russia, Anonymous.Business Asia; New York Vol. 36, Iss. 18, (Oct 4, 2004), p. 6

⁵⁷ 같은 차료, p. 7

는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됐다. 상호간 협력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을 향한 더욱 긍정적인 시선을 가졌다. 게다가 «외교 정책의 개념»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2008년에 채택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평화 유지, 2) 남북한의 평등 한 관계 발전, 3) 한반도의 비핵화. 우선, 러시아의 관심 분야는 지역 통합과 극동 러시아 및 동부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국경 지역의 보안 유지는 동북 아시아에서 러시아 정부가 직면한 목표이다.⁵⁸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 정책의 주요 방향은 몇 가지 주요 요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권 야망의 충족이다. 즉, 남북한과의 이전 관계를 보존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국, 중국 및 기타 주변 국가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과의 경제 협력 및 에너지 분야 개발이다. 이를 위해 남·북·러 3국의 경제 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 외에도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고려는 6자 회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반도의 핵 문제를 외교적 및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요 3국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과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가스 및 유전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3국간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를 해결해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작업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2008년 9월 28–30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명박

⁵⁸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kremlin.ru/acts/785> Date : 2013.05.20); Taekang Choi,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ast, Present, and Future," New Asia(Korean), Vol. 16, No. 2, 2009, p. 59.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했다. 두 국가의 국영 가스 회사인 Gazprom과 Kogas간에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이는 가스 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합의에 근거했다. 각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러시아에서 연간 750만 톤의 천연 가스를 수출할 계획으로 나온다. 이외에도 양자 간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캄차카 지역에서의 가스전 개발 사업인 «West Kamchatka» 프로젝트도 이루어졌다. 이후, 양국 에너지 협력은 2009년 8월 에너지 장관들이 서명한 한–러 에너지 협력 실행 계획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협정에는 한국이 러시아에서 천연 가스를 수입하는 것과 «West Kamchatka» 프로젝트 및 러시아 전력 계통의 현대화도 포함된다. 2009년 4월, 한국은 «사할린–2» 가스전에서 20년 동안 연간 1.5톤의 천연 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9월 8일에 AP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가스관 철도 송전선 등 사업에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협력사업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련 사업추진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을 러시아 에너지 자원 소비의 주요 시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도 동북아 러시아 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러시아 정부의 경우 극동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들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자원 개발 (ESPO, UGSS, 동부 가스 건설이 시급, 파이프 라인 등)에 힘을 쓰고,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공급 업체로서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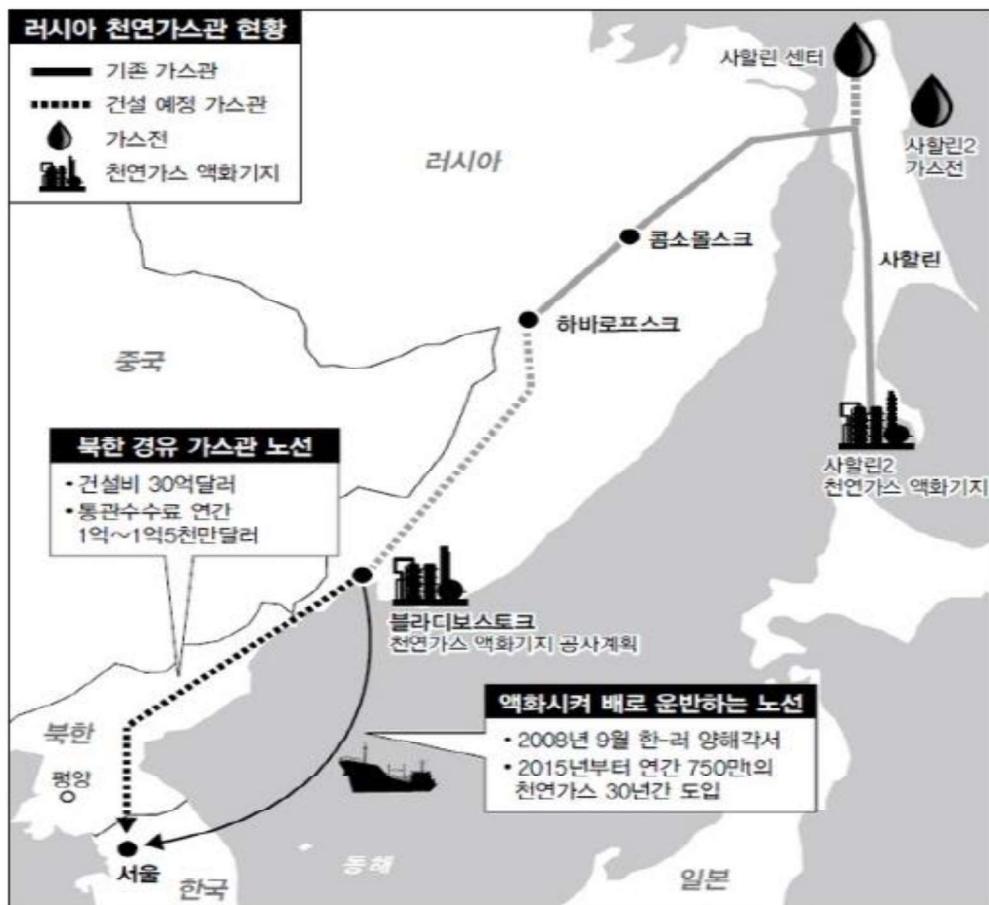
4.2.3. 북한 채무 탕감과 한반도-러시아 간 가스파이프 라인 사업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은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 수입에 최대 97%까지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와 남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현재 에너지 수출량, 수입량으로만 보았을 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가스관 공동 사업은 1990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한·러 양해 각서는 2008년에 체결됐다. Gazprom과 Kogas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만남에 이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가스 공급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향후 30년 동안 Kogas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10bcm의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블라디보스토크-북한-남한 노선의 가스 공급용 LNG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2년 동안 북한을 통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수익성이 확인되었다.

각서에 따라 러시아 극동 사할린 섬의 가스전에서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가는 파이프 라인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원래 파이프 라인은 연간 100억 입방 미터의 가스를 수송할 예정이었으며 이는 남한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비용은 30억 달러로 추정했다.⁵⁹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육상을 통한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며, 이 경우 가스 파이프 라인은 한 번에 두개의 국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는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 가스 공급의 대가로 특정 상황에서 국가적 협력을 북한에게 기대할 수 있다.

⁵⁹ Kang, Shinhye, "South Korea Seeks \$90 Billion of Russian Natural Gas," Bloomberg, September 29, 2008



러시아 천연가스관 현황 (2011)⁶⁰

2009 ~ 2010년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의 핵 정책과 관련 6자 회담의 붕괴에 대해 러시아 정치계의 우려는 상당히 커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남한 간의 활발한 관계 발전 덕분에 양국 간의 무역 수치가 높아졌다. 2010년에 양자 무역은 82.2%로 증가하여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0년 한 · 러 정상 회담에서 남한은 러시아 가스 및 석유 수입을 75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10년 기준 남한 연간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게다가 남한은 극동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

⁶⁰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491525.html

에도 투자했다. 61

한편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다. TKS-TKR 연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등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주된 걸림돌은 소련 시대부터 남아 있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부채였다. 채무 상환에 대한 첫 번째 협상은 2006년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파리 채권자 클럽의 참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구조 조정 작업은 양자 간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부터 북한의 채무 구제 가능성성이 논의되었다. 2009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두 번째 가스 갈등 이후 러시아 당국은 채무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 5월 러시아 외교 정보 국장 프라드코프가 북한을 방문했고 2011년 6월 김용재 북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에너지 분야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2011년 7월 4일 알렉산더 아나넨코프 관리위원회 부회장이 이끄는 Gazprom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 한국 중앙 통신 (KCNA)에 따르면 대표단은 북한의 에너지 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Gazprom 대표단은 북한 부총리도 만났다.

게다가 2011년 김정일은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2011년 8월 20일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가스, 에너지, 철도 분야에서 남한 · 북한 · 러시아의 3자 협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11년 8월 2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정일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김정일은 핵 실험과 핵 물질 생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일이 러시아 영토를 처음 방문한 곳은 아무르에 있는 부레야 댐 지역이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북한 지도자를 초청한 주된 이유를 반영하고 있다. 부레야 댐은 풍부한 수력발전으로

⁶¹ Yi, John K., "Russia-South Korea Relations: Much ado About Something," International Policy Digest, October 26, 2011.

인해 잉여 전력 발전량이 존재하는 곳이고, 러시아 당국은 이 잉여 발전량을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아, 러시아와 북한이 에너지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일 방문 당시 북한 채무 해결에 대한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러시아는 북한 채무의 약 90%를 탕감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또한 해군의 공동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에 합류했으며 TSR-TKR 실행을 추진했다⁶². 이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된 상황을 감안할 때, 2010–2011년 러시아 외교 이니셔티브의 핵심이 되었다. 2012년 9월 18일 러시아는 북한의 대소련 채무의 90%를 면제하고 남은 10%는 북한경제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 처리하였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채무를 탕감해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극동의 발전을 연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합의와 운영상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육상 가스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는 유럽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가스 판매 의존도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철도, 석유, 가스 및 에너지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합 에너지 및 물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남한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러시아에게 북한의 입장과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줬다고 볼 수 있다.

⁶² Blank, Stephen, "Kim Jong-il's Excellent Adventure in Siberia," Eurasia Daily Monitor, September 12, 2011.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관계와 그 속에서 기존 소련과 북한의 가지고 있던 채무 관계의 역할에 대해 깊은 탐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북한의 탕감 채무의 특징적인 요소에 대해서 밝혔다. 본 논문을 통해서 밝힌 요소를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준 역사적 사건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이후 소련과의 협력을 개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존에도 중요한 요소였다. 소련은 북한에 대해 전후 건설 사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 밖에 북한의 소련 유학생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소련의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2년 차관을 통한 군사장비 제공을 요청한 북한에 대하여 소련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그 후 북한은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신속히 줄여 나갔다. 이런 이유로 북-러 관계에서 남은 이슈는 오직 북한의 대소련채무 뿐이다. 북한은 1980년 국가부도 상황에 처했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되어 채무를 해결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1997년 이후 북한의 부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2006년 러시아 Vneshtorgbank와 북한 대외 무역 은행은 마침내 부채 금액에 대해 타협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 통화로 재 계산된 후 8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처음으로 북한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 잔액 지불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2007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소련 이후에도 유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가스 수출의 주요 목적지였다. 하지만, 두차례의 가스 갈등 사건으로 인한 러시아 산 가스 공급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유럽 국가의 자체적인 기후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2000년대 초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 판매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새로운 가스 수출 시장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동쪽, 즉 아시아 쪽에 공급되는 에너지 자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또한, 2006년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수출에서 아시아의 점유율을 당시 3%에서 30%로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9년 8월 정부는 «2030년 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크게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개발과 운송 인프라 개발에 2조 달러 투자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스 수출은 러시아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으로의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은 러시아에게 필수적인 프로젝트로 부상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과의 형제 관계보다는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더 관심이 있었다. 1990년대 초의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한과 교류하면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합리적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러시아는 남한을 러시아 에너지 자원 소비의 주요 시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도 동북아 러시아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로 보고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경우 극동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들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이 시급했다. 러시아는 가스 파이프 라인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공급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고, 가스 수출 시장은 과거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했다. 가스 파이프 라인은 한 번에 두개의 국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는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 가스 공급의

대가로 특정 상황에서 국가적 협력을 북한에게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스 파이프라인과 러시아와 한반도의 지리지적 위치 때문에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만남에 이어 Gazprom과 KOGAS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가스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러시아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했어야 한다. 구소련 북한의 채무로 인해 관계가 복잡해지자 러시아 정부는 2011년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2011년 8월 20일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가스, 에너지, 철도 분야에서 남한, 북한, 러시아의 3자 협력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 김정일 방문 당시 북한 채무 해결에 대한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으로 북한의 채무의 90%를 탕감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배경 속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와의 완만한 대화를 이끄는 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남한과의 관계는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가진다. 러시아와 남한 관계 수립 이후 3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두 국가는 외교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두 국가 간 정치적 신뢰가 강화되었고,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정상 회담과 같은 외교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긴밀한 상호 작용은 동북아 통합에 있어 한-러 간 협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은 극동 러시아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동부에 선진 경제 개발 영토 (regional development zones (RDZ)⁶³)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

⁶³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며 인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 어진 러시아의 특혜 세금 조건, 단순화된 행정 절차 및 기타 특권을 가진 경제

자하고 있다.

러시아와 남한 간의 가장 수익성 있는 협력 모델은 역시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를 이해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부채 탕감 등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남북 경제 대화와 3국 협력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한반도의 핵 문제와 남북한의 미해결된 국가 간 문제는 군사적 혹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주된 장애물로 인식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3국 협력 제안은 남한과 북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이 지역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남북한이 타협하고 경제 교류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3국 협력은 남북 경제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다자 협력은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지역의 공동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남한-북한 간의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기존의 양국 간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남북한이 지역의 공동 경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 협력의 발전과 남북한의 3국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다자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남한-북한의 관계를 개선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참고 문헌

자료

소련과 북한 우호협력조약 문서, 1948년 10월 12일

소련과 북한 우호협력조약 문서, 1948년 10월 12일

OECD Economic Surveys RUSSIAN FEDERATION. Volume 2009/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의 외교 정책 개념)

Программ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редитов иностра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ам, их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ам, а также инвестиц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территории РФ(러시아 연방의 외국, 법인 및 러시아 영토 밖의 투자에 대한 국가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Письмо Сталину от В.Молотова с просьбой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СССР и Корея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кредит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 –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для оплаты поставляемых Коре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ов, а также военного имущества.

11 марта - 114 - 1949 года. (북한에 군사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소련 외무 장관 몰로또브의 요구사항)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4 августа 2004 г. N 435."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выверки и принятия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требований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мерческих кредиторов по задолженности бывшего СССР по компенсационно-фахтовым операциям".(대소련 채무재조정에 관련하여)

단행본

김학기, 김석환, Tagir D. Khuziyatov(2014)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Adam N. Stulberg, Out of Gas?: Russia, Ukraine, Europe, and the Changing Geopolitics of Natural Gas, Volume 62, 2015 - Issue 2: Making Sense of Russian Foreign Policy

Adam N. Stulberg, Strategic bargaining and pipeline politics; Simon Pirani, Jonathan Stern, and Katja Yafimava,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 of January 2009: A Comprehensive Assessment,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Ahn Byung-joon. South Korean — Soviet Relations.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Vol. 31, No. 9 (Sep., 1991)

Alexandros Petersen, Katinka Barysh, Russia, China and the Geopolitics of Energy in Central Asia(2011)

Alexandros Petersen, Russia, China and the Geopolitics of Energy in Central Asia. Blank, Stephen, "Kim Jong-fl's Excellent Adventure in Siberia," Eurasia Daily Monitor, September 12,2011.

Doug J Kim, Russian Influence on North Korea: Views of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s to Russia(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4권3호 ,2012)

General Baik's Korean War Memoir, Shoot Me If I Retreat: The 1,128 Days' Memories (Seoul: The JoongAng Ilbo, 2010), 203.

Jonathan Stern, The Future of Russian Gas and Gazpro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Jonathan Stern, The Future of Russian Gas and Gazprom.(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Kang, Shinhye, "South Korea Seeks \$90 Billion of Russian Natural Gas," Bloomberg, September 29, 2008

Keun Wook Paik, “Pipeline Gas Introduction to the Korean Peninsula” Chatham House Report(London, January 2005)

Kim, D. J. (2012). Russian influence on North Korea: views of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s to Rus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Leshakov, P.S. (2005). Russia's Role in the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 DPRK. Korea: New Horizons. Moscow: IFES RAS. 201
- Lho Kyongsoo. Seol-Moscow Relations. Looking to the 1990s. Asian Survey, 1989, vol. XXIX, no. 2
-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8)
- Mikhail Kholosha(2013) “Inte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Individual Country Report Russia,” Greater Tumen Initiative Secretariat,
- Nina Ershova(2014) “Japanese Investments in Russia: Far Eastern and Western Russian Regions Compare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 No. 2
- Pirani, Stern, and Yafimava, The Russo-Ukrainian Gas Dispute(2009)
- Roh's road to Russia, Anonymous.Business Asia; New York Vol. 36, Iss. 18, (Oct 4, 2004)
-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White Paper 1996–97 (Seoul: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7)
- ROKAF Headquarters, Memories of the Korean War: Royal Australian Air Force in the Korean War (Seoul: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1)
- Stephen Blank(2011) “Kim Jong Il’s Excellent Adventure in Siberia”
- Suslina, S. S. (2006) Russia’s economic impact on the ROK and the DPRK in the context of integration processes in the NEA. Korean Peninsula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 Taekang Choi,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ast, Present, and Future,” New Asia(Korean), Vol. 16, No. 2, 2009
- Toloraya, G. (2012). North Korea is the key to Asia-Pacific Region, Korean Settlement and Russian Interests
- V. Denisov & A. Zhebin, Leshakov, P. S. (2005). Russia’s role in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2000-2010 годы) // под общ. ред. В.А. Гусейнова – М.: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011.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 с.95 письмо председател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председателю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ощ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Савельев(2001),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нов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사벨예브. “러시아연방의 정치 모색과 러-한 관계)

논문

김찬진(2009), “냉전 시기 소련-북한의 비대칭동맹과 북한의 자주외교”
두진호. 2009.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연구 –
소비에트 이후 지정학적 변동을 중심으로
이유신. 2006. “2006년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의 원인에 대한 논
의”『중소연구』

Suslina S (2006) Russia's economic impact on the ROK and the DPRK in the context of integration processes in the NEA in Korean Peninsula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cademic Conference of Russia and CIS Koreanists. IFES RAS, Moscow

Yi, John K., "Russia-South Korea Relations: Much ado About Something," International Policy Digest, October 26, 2011

Забровская Лариса, Влияние перестройки на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СССР и КНДР

Yi, John K., "Russia-South Korea Relations: Much ado About Something," International Policy Digest, October 26, 2011

Suslina S (2006) Russia's economic impact on the ROK and the DPRK in the context of integration processes in the NEA in Korean Peninsula and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cademic Conference of Russia and CIS Koreanists. IFES RAS, Moscow

인터넷 기사

Россия на 90% простила КНДР долг в 11 млрд долларов,

https://www.bbc.com/russian/international/2012/09/120918_korea_russia_debt (검색일: 2021.05.11)

Россия списала Афганистану долг в \$11 млрд

<https://www.rbc.ru/economics/06/08/2007/5703c8789a79470caf766646>(검색일:

2021.04.31)

Фаляхов Р. Россия простила Кубе \$30 млрд долга // Газета. Ру. 2014. 15 июля.

<https://www.gazeta.ru/business/2016/09/26/10216463.shtml> (검색일: 2021.05.02)

S.Korea, Russia and N.Korea move forward with gas pipelin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491525.html (검색일:

2021.05.06)

О ВСТРЕЧ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П.ЛОСЮКОВА С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ДЖЭ ЧУНОМ https://www.mid.ru/ru/maps/kr-/asset_publisher/PR7UbfssNImL/content/id/595288 (검색일: 2021.05.06)

Questions of feasibility, benefit on pipeline deal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1/09/04/socialAffairs/Questions-of-feasibility-benefit-on-pipeline-deal/2941131.html> (검색일: 2021.04.12)

О ВСТРЕЧЕ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И И.Х.ЮСУФОВ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И ГЛАВНЫМ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ГАЗОВОЙ КОМПАНИИ «КОГАЗ» О КА

ХЮНОМ http://www.mid.ru/ru/maps/kr-/asset_publisher/PR7UbfssNImL/content/id/496458 (검색일: 2021.05.11)

Interview with Vladimir Putin//Financial Times, 2006 Sept. 10

<http://www.ft.com/cms/s/0/76e205b2-40e5-11db-827f-0000779e2340.html#axzz1hp0laL2C> (검색일: 2021.05.10)

Европа сейчас меньше зависит от поставок газа из России, чем

раньше <https://www.vedomosti.ru/finance/articles/2014/03/06/evropa-menshe-zavist-ot-postavok-gaza-iz-rossii-chem-ranshe> (검색일: 2021.05.10)

인터넷 자원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ttps://www.iea.org/>

Gazprom website, <http://www.gazprom.ru/marketing/>

기타

With Gas Cut Off, Southeast Europe Questions Reliance on Russia,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FE/RL), January 14, 2009

Не брать и не платить // Ведомости 25 октября 2012

Abstract

North Korea–Russia economic relations: Focusing on Russia's debt relief to North Korea

Belonog Anna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the role of North Korean depth to Russia. Since 1997,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over North Korea's debt. In 2007, North Korea officially declared its inability to pay off Russia's debt. Russia decided to forgive North Korea's debt in 2012. A hypothesis was put forwar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Russia forgave 90% of the former Soviet Union's depth exactly in 2012. Russia has developed a plan to actively increase gas supplies to Asia while reducing its dependence on excessive gas exports to Europe, which has led to debt cancellation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springboard for thi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diplomatic divid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deepened, whil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began to develop into better ones. Accordingly, Russia continued relations with the help of an equidistant diplomatic strategy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other hand, historically, the Russian gas export market was

dependent on Europe. Two gas conflicts have led to a decrease in the confidence of European countries receiving gas from Russia . In addition, gas exports to Europe are expected to decline along with changes in European gas policy, which is confirmed by statistics. In this situation, Russia needs to start delivering to the Northeast Asian market, not to rely on the European market only.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North Korea is important since Russia is opening a channel for gas exports to South Korea – one of the most expedient markets in Northeast Asia. For the resumption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nd,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needed to forgive the past debts of North Korea.

Keywords : 구소련 채무, 북한, 러시아, 북–러 경제관계, 남–북–러 경제관계, 북한의 채무

Student Number : 2019–20865